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진종현*

Landscape as Representation or Practice: Focu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Theory of Landscape as ‘a Way of Seeing’

Jongheon Jin*

요약 : 이 논문은 1980년대 이후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적 쟁점에 주목하여, 경관의 ‘재현’과 ‘이중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평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이론을 고정되어 있고 폐쇄적이며 완결적인 이론 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다양성과 차이가 뚜렷하고 시간에 따라 진화 혹은 변화해 온 이론과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문화지리학의 현상학적 전환을 통해 문화지리학자들은 비재현 이론에 기초한 대안적 접근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재현적 지리학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비판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경관을 재현보다는 수행과 실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관 연구 비판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검토하는 것이다.

주요어 : 신문화지리학, 재현, 경관의 이중성, 비재현이론, 현상학적 전환, 수행, 실천

Abstract : The paper examines the recent criticism from various viewpoints on landscape research in ‘New cultural geography’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 and duplicity of landscape as one of the key theoretical basis of the landscape school. The paper argues that landscape theories in new cultural geography should be considered as what is constantly changing over time and composed of various theoretical and genealogical elements rather than internally homogeneous, fixed, and closed system of knowledge. Through the recent ‘phenomenological turn’ of geography, landscape researchers explores a possibility of alternative approach to the existing theories and methods, which is so called NRT(Non-representational theory). The research objectives of the paper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such significant criticisms, which put emphasis on the idea of landscape as performance and practice rather than landscape as representation in cultural geography.

Key Words : New cultural geography, representation, duplicity of landscape, Non-representational theory, phenomenological turn, performance, practice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2013년 6월 대한지리학회·한국조경학회 공동심포지엄(국가자산으로서 국토경관의 가치와 역할)에서 ‘지리학의 경관관념과 경관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음.

*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jhjin@kongju.ac.kr

1. 머리말

경관은 인문지리학에서 독보적으로 가치 있는 개념이다. 장소와 달리 경관은 자연의 윤곽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환기시킨다. 환경이나 공간과 달리 경관은 인간의 의식과 이성을 통해서만 그 윤곽이 우리에게 알려지며, 단지 기교를 통해서만 인간으로서 그 곳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동시에 경관은 지리학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익과 손해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기쁨과 슬픔의 원천이기도 하다(Cosgrove, 1989).

20세기 초반 Sauer가 문화경관의 개념을 정립한 이래로 경관은 문화지리학의 핵심주제이자 용어가 되어 왔다. Sauer 이후로 Tuan과 Relph를 비롯한 인간주의 지리학자들, 그리고 신문화지리학의 대두와 그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경관 관념과 실천을 둘러싼 많은 주장들은 인문지리학의 이론적 지형의 변화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신문화지리학의 기본개념과 문화연구에 대한 소개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류제현, 2009; 박승규, 1995; 이무용, 1999; 진종현, 2006; 홍금수, 2009). 그러나,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을 향한 다양한 비판적 관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비판적 관점의 스펙트럼은 페미니즘과 마르크시즘에서 최근 인문지리학의 현상학적 전환(phenomenological turn)에 영향을 미친 인류학의 경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러한 비판들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왔다. 신문화지리학에서 다루어 온 경관 관념은 '재현(representation)으로서의 경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문화지리학에 대한 비판은 근본적으로 재현의 관점 및 재현의 지리학(representational geography)에 대한 비판으로 수렴되고 있다. 즉, 최근의 (신)문화지리학의 새로운 연구들의 맥락과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그에 대해 이루어진 이론적·실천적 비판의 핵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신문화지리학의 이론과 방법론은 Sauer의 연구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문화지리학과 대비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이론적·방법론적 토대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전통적인 문화지리학과와의 차이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둔 나머지 신문화지리학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문화지리학에서 경관을 '보는 방식(a way of seeing)'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텍스트'로 이해하는 입장 사이의 공통점과 상호관련성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차이를 검토하여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의 역동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 20세기를 관통하여 지속된 경관을 둘러싼 논쟁과 주장들을 여기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어차피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일관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경관의 이론적 이중성(혹은 모호함)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학자들의 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관의 '이중성(duplicity, Daniels, 1989)'은 그 자체로 애매한 표현이지만 경관의 재현적 성격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유효적절하다. 즉, 경관은 그 '이중성'을 통해서 글 첫머리의 인용문처럼 '환경'이나 '지역' 혹은 '장소'와 차별화되며 경관의 물질적인 측면과 상상적인 측면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은 경관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다루면서도 논의의 지향점을 경관의 변증법적 성격-주체와 대상, 정신과 육체, 개인과 사회,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수렴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대별로 각각의 경관 이론들이 상이한 이론과 방법론 속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재현(representation)'에 대한 문제설정 및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실천(practice) 및 수행(performance)으로서의 경관의 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연구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0여 년간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조류로 자리한 신문화지리학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관점에서의 비판이 갖는 이론적·실천적 함의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둘째,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에 내재한 다양성과 차이를, 경관 관념의 이중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할 것이다. 셋째, 신문화지리학의 경

관론에 대한 최근 지리학의 비재현이론 및 현상학적 비판이 갖는 함의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2. 신문화지리학 경관 이론의 형성과 진화: 개념과 방법론

1980년대 지리학에 급진주의(혹은 비판적 지리학)적 흐름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문화지리학 분야에 새로운 이론적 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Cosgrove, Daniels, Duncan, Jackson 등의 젊은 지리학자들은 지리학 외부에서 가져온 이론과 방법론으로 무장하여 여전히 Sauer의 유산에 긴박되어 있던 문화지리학자들 혹은 개념의 추상성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인해 인문지리학의 주류로 도약하는 데는 실패했던 인간주의 지리학자들과 구분되어 ‘신문화지리학’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문화지리학의 개념과 연구 방법에서 경관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문화지리학과는 달리 지리학 외부에서 많은 이론적·방법론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당시의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의 경관에 대한 반과학주의적·전체론적(holistic) 주관적 경관론을 비판했다.

1)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관념과 투시법

일반적인 의미에서 경관은 지구의 표면 중 일부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지역(area/region)과 의미의 상당 부분을 공유한다. 경관은 지표 위의 사상(事象)-자연 현상이나 인문현상-의 시각적·기능적 배치와 질서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물리적 구성을 넘어서 그 질서가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Cosgrove, 1984, 1; 이영민 등 역, 2011, 112; Meinig, 1979 참조). 지난 1세기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지리학자(문화지리학자)들은 그 사회적·문화적 의미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해왔다. 전통적으로 독일지리학자들 사이에 비물질적, 비가시적 현상을 지리학적 연구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형태(morphology of forms)에 집중해야 한다

는 순수주의자와 포괄적인 설명을 위해 연대기적이고 생태학적인 차원을 포괄하자는 헤트너 학파의 논쟁이 계속되었다(Holt-Jensen, 1981; Geipel, 1978; Cosgrove, 1984, 31에서 재인용). 비슷한 논쟁이 미국지리학에서도 있었으며 그 결과 경관지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와 화가, 소설가, 시인의 경관 관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Cosgrove, 1984, 31). Mikesell(1968, 578)은 지리학자의 투시법(관점)이 예술가의 그것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마치 헬리콥터의 조종사와 같은 투시법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예술적 재현에서의 투시법을 지리학연구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지리학자의 객관적인 지위를 보충하기 위해 지리학자들이 그가 생산한 수많은 측량과 지도와 항공사진에서 ‘주체’로서 사라지게끔 했다(Cosgrove, 1984, 33).

Cosgrove는 경관 이론에 대한 대표적 논문인 <조망, 투시법, 경관 관념의 진화(1985)>라는 논문에서 르네상스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 방식-경관(landscape as a way of seeing)의 이론적 기초와 기술로서 선투시법(linear perspective)의 역사를 검토했다. Alberti에 의해 최초로 이론화된 투시법은, 인쇄술이 활자에 미친 영향만큼이나 그래픽 이미지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Cosgrove는 당시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의 경관 관념에서 반과학주의와 시각이미지에 대한 경시를 비판적으로 보았기에, 경관 관념이 사실상 르네상스 시기에 과학과 지식에 대한 추구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되었음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Cosgrove, 1985, 45-46).

경관은 용어로서, 관념(idea)으로서, 더 적절한 표현으로는 외부세계를 보는 방식(a way of seeing)으로 15세기와 16세기 초에 출현했다. 경관은 시각적 용어이며, 그것은 초기에 르네상스인문주의의 공간에 대한 특수한 개념과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동시에, 경관은 공간의 실제 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 그 연계는 도시부르주아가 새롭게 획득하여 지배하게 된 ‘개량된’ 상업적 토지에 대한 측량과 지도화, 대포의 거리와 궤도의 계산 및

그에 대응하는 방어적 요소화 등이었다. ... 측량과 지도제작, 조례의 도표작성이 실제로 수행한 것을 회화와 정원디자인에서 경관은 시각적·이데올로기적으로 성취했다(Cosgrove, 1985, 46).

이처럼 경관 관념의 이론적인 정립은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실천 즉, 토지(공간)의 소유 및 상품화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경관은 토지의 통제와 지배에 대한 자산가 집단의 욕망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경관을 통해 구성되는 권력은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경관은 '개별적 관찰자에 의해 전유될 수 있도록' 외부세계를 프레임 속에 '구조화하는 보는 방식'이다(Cosgrove, 1985, 55). 기하학과 투시법의 규칙을 통해 개인의 시선은 사회적 권력을 표상하게 되며 이는 개인과 사회를 중재하는 경관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완성한다. 다시 말해서 투시법의 장치는 기하학적인 공간 속에서 관찰자로 하여금 '질서와 통제의 환상'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투시법은 한편으로는 관찰자를 세계와 '결정적으로 분리'시키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세계에 '투시법의 축을 따라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에 '주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환상'을 관찰자에게 부여한다(Cosgrove, 1985, 55). Cosgrove는 이러한 환상이 풍경화의 후원자이자 토지의 소유주가 실제로 행사하는 권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시각 이데올로기로서 경관 관념을 완성한다고 말한다.

2) 신문화지리학과 마르크시즘

경관 텍스트론이 신문화지리학의 주요 방법론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면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초창기에 신문화지리학은 명백히 비판적 지리학의 한 부분으로 정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Cosgrove는 1983년 《Antipode》저널에 〈급진적 문화지리학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하면서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흐름이 마르크시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명백히 했다. 그는 '마르크시즘과 문화지리학은 문화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면

서 문화에 대한 급진적 역사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의 관점에서 Sauer가 문화를 생산관계의 역사성과 무관하게 '순수한 인간의 창안'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Cosgrove, 1983, 1).

신문화지리학의 출발점이 급진주의 지리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문화지리학의 진화와 발전 그리고 쇠퇴(?)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1980년대 초반 무렵 경관 관념은 인간주의 지리학의 관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으며,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측면에서 급진지리학과도 의미 있는 공유점이 있었다. 그러나, Daniels(1988)는 인간주의 지리학(Pocock, 1981)의 현상학적 방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후의 문화지리학 그리고 경관의 관념은 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범주로 분석되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관계의 물질성에 대해 보다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실상 경관 연구에 역사유물론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추상적이고 신비화된 개인적 자아의 경관경험 및 장소감 연구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Sauer 전통의 문화지리학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주의지리학자들이 문화의 역사적·물질적 차원을 무시함으로써 급진지리학에서 문화지리학은 약화되고 문화는 잔여적인 범주로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Daniels, 1989, 203). 인간주의 지리학과의 구별짓기는 Cosgrove(1985)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1980년대의 신문화지리학은 비판적·급진적 지리학이 대두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나타났으며, 한편으로는 지리학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와 함께 하고 있었다. Harvey뿐만 아니라 Massey는 국지성(locality), Gregory는 지역(region), Sayer는 자연(nature)의 개념을 중심으로 비판적 지리학의 방향을 모색했으며 Cosgrove의 경관 연구 또한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Daniels, 1989).

앞서 살펴본 것처럼 Cosgrove 또한 경관 개념의 형성과 변화를 논하면서, 자본축적 및 물질생산과 함께 토지의 성격 변화를 주요한 배경으로 들고 있다. 즉, 자본주의 이행기 동안 토지의 의미가 사용가치에서 교환가치로 변했으며 상품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W.J.T. Mitchell(1994)이 '경관은 화폐'라고

언급한 것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에서이다. Cosgrove와 Daniels가 제시한 새로운 경관 관념과 경관 이론은 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를 생산의 사회적 관계와 연계시키고, 이로부터 경관에 내재한 물질성의 기반을 추구함으로써 Sauer의 전통과는 달리 비판적 지리학으로서의 문화지리학을 재구성하려 한 것이다.

물론, 두 사람과 자본축적의 공간관계에 초점을 두는 다수의 비판적 지리학자들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표면적으로 ‘문화적 전환’ 속에서 Harvey에서 Mitchell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들은 문화 혹은 경관을 연구의 중요한 연구 의제로 삼는 것처럼 보였다. 파리의 역사 및 경관에 대한 Harvey(1979)의 성심성당(the Basilica of Sacre-Coeur)에 대한 저술은 방법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혹은 경관)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는 사회관계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이 아니었으며, 문화의 문제는 실제공간의 질서—즉, 자본축적과 순환이 만들어내는 건조환경—에 후속되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Harvey의 대표저작 중 하나인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1989)》 역시, 당시 학문세계에서 유행의 정점에 있었던 포스트모더니즘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으나 결론은 간단히 말하자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름하에 나타난 다양한 사회문화현상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결국 자본축적양식의 변동(유연적 축적)에 조응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화적 변화이자 근본적으로 모더니티(근대성)에 내재한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급진주의 지리학자들의 ‘문화’에 대한 관점은 <문화라는 것은 없다...>라는 Mitchell(1995)의 논문(특히 그 제목)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즉, 신문화지리학자들은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문화와 재현, 경관에 대한 분석에서 주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과 다른 방법을 택했으며 이는 그들이 지리학내의 급진적 전통보다는 R. Williams나 E. P. Thompson 등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Cultural Marxism)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사회적·계급적 투쟁과 갈등이나 경제구조 및 축적체제

의 모순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학자들과는 달리 Williams와 함께 신좌파(New Left)라 불리는 Thompson(나종일 역, 2000)은 노동계급의 ‘문화’적 형성 과정에 천착하여 노동조건과 착취의 경험, 생활수준 및 주거상태, 공동체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사료분석에 근거하여 노동계급문화와 계급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탐구하였다. Thompson의 관점에 따르면 노동계급은 만들어지는(be made) 것이라기 보다는 스스로를 계급의식을 가진 주체로 형성하는 데(making) 그 매개수단이 노동계급의 문화 혹은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이다. 즉, 이때 문화는 고전적 마르크시즘의 공리주의적인 평가절하된 개념이 아니라 인류학적인 개념의 문화로서 한편으로는 귀족적이고 한편으로는 서민적인 것이다(Daniels, 1989, 198). Williams는 경관 연구자들이 수없이 인용해 온 ‘일하는 시골은 좀처럼 경관이 되기 힘들다(1975, 26)’라는 주장을 통해 그의 관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경관의 설계와 조성에 대한 저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사회의 일반적인 역사를 이해해야 하며, 경관은 ‘토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정한 사회적 배치—토지의 분배, 이용, 관리—의 일부’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현석 역, 2013, 243). 그는 ‘멋진 조망’이라는 제목의 12번째 장에서, 18세기에 경관에 대한 ‘심미적’ 관찰과 ‘실용적’ 관찰이 분리되었으며, 사회적 과정 속에서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 주체를 자의식적 관찰자라고 칭한다(이현석 역, 2013, 244-5). 그랜드 투어에서 익혀 온 문화적 감수성에 따라 18세기 영국에서 저택과 정원을 건설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그는 지주계급의 예술적 문화적 취향과 토지와 자연의 변형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¹⁾ 경관의 이면에 숨겨진 노동과 노동자들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그는 Cosgrove와 같은 신문화지리학자들뿐만 아니라 Mitchell과 같은 마르크스주의 문화지리학자에게도 의미 있는 유산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Cosgrove는 18세기 영국에서 조망과 경관의 사회적 형성 및 토지(공간)의 실제 전유와의 관계에 대한 Williams의 견해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경관의 시각적·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으로 발전시켰다. Wiley 역시 Cosgrove와 Daniels를

Berger 와 Williams의 ‘문화 마르크시즘’을 계승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 비해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사회적 규범, 조절제도, 문화산물과 가치-에 경관 연구를 혁신적으로 위치시켰다고 언급한다(Wylie, 2007, 100).

3) 경관 관념의 이중성 혹은 모호함

Cosgrove는 그의 대표저서의 본문 ‘경관은 지리학에서 부정확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1984, 13)’라고 시작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경관의 모호함(ambiguity)은 그 이중적, 변증법적 성격에서 비롯되는데, 경관을 주체와 대상, 개인과 사회 간의 이중적 관계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에 따르면, 경관 관념은 주체와 외부세계의 분리에서 출발하는데 양자는 능동적인 인간실천(참여)을 통해 매개된다. 즉, 경관 관념 속에는 인간의 개인적·주관적인 반응이 내재해 있으나 이는 경관 관념의 이론화에 적절하지 않은 정서적 차원(나아가 상징적 차원)을 내포하기에 형태를 중시하는 Sauer 문화지리학은 이러한 측면을 배제하려 했다. Cosgrove는 반대의 전략을 취한다. 그는 경관을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주관적·개인적 측면을 포기하지 않고 경관의 사회적 맥락을 오히려 강조한다. 그 의미는 경관이 특정 계급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세계를 의미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의 상상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그들은 외부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과 타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의사소통해왔다는 것이다. 물질적 삶을 만들어 나가는 매체 즉, 의사소통 및 의미화 장치로서의 경관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은 명백히 Williams의 문화관념에서 영향받은 것이다.

두 번째로, 경관 관념의 모호함은 개인과 사회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Cosgrove, 1984, 18). 이는 구체적으로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경관 관념을 지리학의 다른 핵심개념들과 구분해 주는 것은 그것이 명백히 외부자의 시각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Cosgrove(1984, 33)는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지리학은 외부자

의 시각에 의해서 가능하며, 과학의 요구는 진리의 보편성을 전제하기에 이는 외부자의 위치를 절대화하는 관점-투시법의 장치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과학적 이해는 ‘보는 방식-경관’의 연장이자 발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외부자의 시각은 경관을 조망하고 대상화하는 실천, 즉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경험을 가능케 하는 전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 자체로 개인적인 것이다. 즉, Cosgrove는 경관의 사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성격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관경험이 서로 배치(排置)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관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외부자의 객관적·과학적 시각 모두 투시법의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에 그는 지리학적인 경관과 예술적 경관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따라서 Cosgrove는 경관이라는 용어가 어떤 장소에서 내부자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내부자에게는 풍경과 자아, 대상과 주체의 분리가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고, 내부자에게 경관은 심미적 관습을 통해 매개되지 않으며 집단은 개인과 공존하기 때문이다(1984, 19). 여기서 두 번째 ‘모호함’-개인과 사회 간의 모순-이 도출되며, 이 때문에 경관을 엄밀한 실증과학적인 개념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Cosgrove는 실증적인 방식으로 경관 개념을 과학화하기 보다는 경관 관념의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관습을 통해 ‘문화적 이데올로기’로 경관을 해석한다. 그리고 경관이 투명한 창이기보다는 장막이나 커튼이라고 간주한다.

Daniels역시 경관을 변증법적 이미지로 정의하며, ‘경관의 이중성(duplicity of landscape)’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관이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으로 완전히 물상화(reification)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신기루로 용해될 수도 없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Jay, 1984; Daniels, 1989에서 재인용). 경관은 ‘변증법적 이미지’이며 이는 경관이 종교적인 구원의 힘과 이성의 의식적 개입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모호한 종합이라는 의미이다(Daniels, 1989). Daniels(1989)에 따르면 이는 경관 관념에 내재한 긴장관계와 관련되는데, 이는 엘

리트주의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과 토속적 ‘삶의 방식’으로서의 경관사이의 긴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Cosgrove는 이러한 경관의 성격을 자본주의 이행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역사유물론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경관의 모호함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했다. 즉, 경관은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감각적인 일치 속에서 구현되는 구원과 초월 및 심미적인 시각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물질적 조건의 현실을 가리는 장막이라는 것이며, 그 때문에 우리는 자연세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경관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없게 된다(Wylie, 2007, 67). 결과적으로 경관의 이중성 혹은 모호함에 대한 논의는 신문화지리학에 내재한 문화유물론적 관점의 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 텍스트로서의 경관

Sauer의 경관 이론에 대해 ‘초유기체주의 문화론’이라고 비판했던 Duncan(1980)은 Roland Barthes의 후기구조주의 문학이론을 받아들여 경관을 일종의 문학텍스트에 비유했다. Cosgrove의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이 유럽의 역사적 맥락에서 구체화된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텍스트로서의 경관’은 문학이론을 보다 명시적으로 받아들여 텍스트 공동체(textual communities),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경관의 자연화/탈자연화(naturalization/denaturalization)과 같은 개념을 토대로 수립된 경관의 재현이론이다. 텍스트공동체는 어떤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며 상호텍스트성은 어떤 텍스트의 맥락(context)이 또 다른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실제세계의 물질성과의 관계는 의문시된다. 텍스트로서의 경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글에서 소개되어 왔다(박승규, 1995; 전중환, 2012) Wylie(2007, 80)는 텍스트 접근을 ‘구성주의(constructionism)’로 해석하는데, 문화적 의미들은 경관이나 이미지, 텍스트의 형태로 담론적 영역에서 구성된다는 의미이다. ‘모든 의미는 항상 언제나 재현적이다’. 즉, 언어적 재현 혹은 이미지와 실제 세계와의 관계에서 실제 세계의 선차성은

의문시되고 세계는 담론과 재현을 통해 존재하게 되며, 존재론과 인식론 사이에 혼동이 일어난다(Wylie, 2007). ‘언어(글쓰기 writing)에 우선하는 실제(pre-determined reality)’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Barns and Duncan(1991)의 단호한 진술에서 담론적 구성주의의 요체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텍스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의한다.

Roland Barthes와 여타의 당대 문학이론가들, 그리고 문화인류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텍스트의 개념을 사회경제정치적 제도뿐만 아니라 회화, 지도, 경관과 같은 문화생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의미화하는 실천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텍스트의 독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새로운 서술의 과정이다. 이 확장된 텍스트 개념은 넓게 보자면 포스트모던 관점이며, 이는 텍스트를 실제(reality)를 모사하기보다는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꾸어 말하면 참조적 복제 보다는 의미화의 문화적 실천(cultural practice of signification)이라는 뜻이다 (Barns and Duncan, 1991, 5).

이같은 텍스트의 개념에서 경관의 의미가 도출된다. Barns and Duncan은 Ricoeur와 Barthes의 텍스트개념에서 몇 가지 핵심을 추려낸다.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의 의도를 비껴가며, 텍스트가 원래 만들어진 컨텍스트를 넘어서 재해석된다. 텍스트의 의미는 불안정하며 다양한 해석은 특정 텍스트 공동체의 담론적 실천에 달려 있다. 이러한 텍스트 메타포는 경관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관은 문자 텍스트만큼의 고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경관의 의미는 경관의 저자가 의도했던 바와 달라지고, 경관이 축조된 원래의 상황을 벗어나며 Ricoeur가 텍스트에 대해 부여한 정의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게 된 것이다 (Barns and Duncan, 1991, 6). 더 나아가 경관의 자연화와 탈자연화에 대한 논의는 경관 텍스트론이 사회관계의 물질성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를 보다 명확히 해 준다(Duncan and Duncan, 1988, 124). 예를 들면 Anderson(1988)의 차이나타운 연구에서 차이나타운

경관은 일종의 텍스트로서 인종 범주가 자연화되는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즉, 차이나타운을 물리적·문화적·인종적 ‘타자’로 정의하는 가운데, 그 범주는 밴쿠버 시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정당화했다는 것이다(Duncan and Duncan, 1988).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경관 텍스트론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론과는 달리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적 맥락에서 전통적인 급진적·비판적 지리학과 명확히 자신의 방법론을 구분했으며, 1990년대를 보다 강한 의미에서 ‘재현(적) 지리학(representational geography)’의 시대로 만들었다. 그들의 포스트구조주의 개념과 방법은 자본축적과 사회관계의 물질성에 여전히 주목해 왔던 마르크스주의 급진지리학과 달리 담론이론이라는 한층 포괄적인 범주 속에서 정의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Cosgrove나 Daniels가 주목했던 경관의 이중성 혹은 모호함이라는 특징을 해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경관이 이중성이 궁극적으로 물질적 실체로서의 경관과 상징적·이데올로기적 재현으로서의 경관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도출된 관념인 반면에, ‘텍스트’ 메타포는, 많은 부분을 ‘보는 방식’ 메타포와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현’의 지위와 의미를 다소 극단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경관 관념의 이중성이 작동할 여지를 축소시켰다. 즉, ‘텍스트로서의 경관’ 연구를 통해 (담론적) 재현’은 문화적 실천을 해석하는 도구 혹은 장치의 개념을 넘어서, 경관 대상의 의미를 고착화하고 동시에 해석의 주체에 과도한 담론적 권력을 부여할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인문지리학에서 비재현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이 대두하면서 신문화지리학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주로 향했던 쪽은 경관 텍스트론이었다. 따라서 신문화지리학 내의 두 개의 다른 경관 이론 및 경관 관념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며, 이를 신문화지리학의 동질성 속으로 완전히 용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3.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에 대한 비판

1990년대 이후 일군의 문화지리학자들이 경관 연구에서 새로운 개념과 방법을 정립한 이래 이에 대한 도전과 비판이 다양한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급진주의 문화지리학(D. Mitchell)과 페미니스트지리학(G. Rose)의 비평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비판적 경관 연구는 199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는 ‘보는 방식’이나 ‘텍스트’로서의 경관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수행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류적 경관 담론과 일종의 상호작용하는 담론적 지형을 형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체로 신문화지리학이론의 초창기부터 제시된 이 비판들이 효과적으로 상대를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관론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1) Mitchell의 마르크스주의 문화지리학

Mitchell은 경관을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자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간주했다. 그는 신문화지리학이 경관의 ‘재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천이 일어나는 실제 경관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즉, 그에게 있어 경관의 주요 역할은 사회적 불평등을 가리는 것이다. 그는 “California, the Beautiful and the Damned”의 슬로건이 스타인벡의 소설 《분노의 포도》의 주인공 Tom Joad가 직면했던 경관의 실제 현실과 경관 이미지 간의 괴리를 표현하며, 그것이 캘리포니아 경관의 ‘유혈적 아이러니’라고 말한다(Mitchell, 1996). 즉, 캘리포니아 경관의 심미적 풍경에는 그 풍경을 만들어내는 노동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Cosgrove의 견해처럼 경관을 시각 이데올로기(visual ideology)로 보는 것은, 경관을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Mitchell의 신문화지리학비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그들이 (실제)경관의 생산에 대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들의 작업은 대체로 경관의 의미 해석-즉, 경관의 소비(consumption)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전체 이야기의 절반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Wylie, 2007, 102).

경관 텍스트론은 경관을 문화적 귀결이자 가치의 반영으로 이해한다. 최근의 경관 텍스트론이 방법론과 정치학의 측면에서 상당히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경관생산의 측면을 결핍하고 있다. 이 방법론 내에서 독해가능한 경관은 이미 그곳에 있으며 해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생산된 과정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Mitchell, 1994, 9).

경관의 생산과 그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일관된 것이어서 Sauer의 문화지리학에 대한 비판에서도 주요한 요소이다. 그에 따르면 Sauer의 학설에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언급이 거의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으며 경관이 사회적 생산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류제현 등 역, 2011, 246).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을 물리적 혹은 물질적 실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경관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예술적 상상력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Sauer 이론과의 친연성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물론 미첼은 결론적으로 경관의 생산과 경관의 소비(재현 혹은 해석)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경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되는데, 한 가지는 토지를 만드는 노동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의 산물이 경관으로 재현(re-presentation)되는 것이다(Mitchell, 1996). 물론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경관에 대한 해석보다는 생산과 재생산을 통한 경관 실천에 있는데, ‘형태적 경관(morphological landscape)은 읽혀지기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공간적 실천을 인도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발전하는 것이다(Mitchell, 1996, 29).’는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Mitchell이 비록 경관을 ‘물질성(materiality)과 재현의 통합’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때 재현은 의사소통장치로서의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

행하기보다는 노동의 결과로서의 물질경관의 수동적인 사회적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많은 문화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통적 마르크시즘의 토대-상부구조의 관점을 거의 유지하고 있으면서 문화의 영역으로서 경관의 의미는 물질적 사회관계-노동과 사회갈등의 실천 및 제도에 종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경관에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마르크스지리학의 전통 속에서 N.Smith와 같은 앞선 세대의 급진적 지리학자들에 비해서도 지리-공간의 역할을 사회관계 및 제도의 메커니즘에 더 완고하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의 최종적 관심은 물질경관이 어떻게 생산되는가에 있으며 재현에 대한 언급은 부가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다면) 경관을 사회적 갈등의 산물로 바라보는 그의 견해는 경관을 오히려 물질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Mitchell이 그의 경관 관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물질성’과 ‘재현’ 사이의 균형은 사실상 Daniels가 ‘경관의 이중성’ 개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경관의 본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경관의 이중성이나 모호함에 대해 내재적인 불안정성으로 이해하며 해소해야 할 대상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던 Cosgrove나 Daniels와 비교할 때, Mitchell의 환원주의적 해결책이 더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Rose의 페미니스트비판과 Nash의 반비판

Mitchell과 같은 급진적 지리학자의 비판이 주로 경관 텍스트론을 향한 반면에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Rose는 Cosgrove의 경관론을 전면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Rose는 경관을 시각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신문화지리학자들의 관점이 여성을 수동적으로 묘사하여 자연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문화비평가 J. Berger나 Cosgrove, Daniels 등의 경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앤드루스 부부》라는 그림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서 잘 나타난다(그림 1). Cosgrove(1984)는 이 그림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화가의 흔적을 삭제함으로써 앤드루스 부부가 배경의 경관에 대해 독점

적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표현한다고 해석한다. 반면에 Rose는 남편과 아내의 차별성에 주목하여 총을 옆에 차고 있는 남편만이 역동적인 토지소유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남편 옆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그의 아내는 마치 주변의 나무와 마찬가지로 수동적인 존재, 즉 자연의 일부로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정현주 역, 2012, 221).

남편 앤드루스가 언제라도 경관 속으로 성큼성큼 달려나갈 기세라면 앤드루스 부인은 그 자리에 심은 식물처럼 고정되어 있다. 버거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 두 사람이 모두 지주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남편 앤드루스만 이 땅의 소유주이다. ... 마치 그녀의 옆에 있는 들판처럼 그녀의 역할은 재생산이며, 나무와 들판이라는 상징을 통해 이 역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부과된다(정현주 역, 2012, 222).

같은 그림을 보는 두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 Rose는 남성(문화)지리학자들이 경관을 볼

때 성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며, 이는 지리학자들의 경관경험에 내재한 쾌락과 불안감의 양가감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리학자들이 경관을 통해 불안한 쾌락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 이러한 쾌락은 자연과 여성이 남성적 욕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경관은 양육받는 어머니라는 환영받는 자연인 동시에 스팅크스와 고르곤이 지배하는 공포스러운 자연이기도하다는 것이다(정현주 역, 2012, 240-9).

경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쾌감은 이성애 남성의 시선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Rose에 따르면 Daniels는 경관(시골 이미지)에 대면하여 느끼는 이 같은 쾌감에 대해 얼버무리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하는데서 오는 이 같은 쾌감은 미학적 남성 중심성을 뜻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결코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정현주 역, 2012, 34-5). 결국 관찰자와 대상 간의 '거리두기'와 '보기'를 통해 지리학 지식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쾌락이 자극되기 때문에 양자 간의 끊임없는 진자운동(oscilla-



그림 1. 앤드루스 부부(Mr and Mrs Andrews), Thomas Gainsborough의 작품(1750)

tion)이 불안정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Rose의 비판은 경관 텍스트론으로 이어진다.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을 지리학적 응시의 남성중심성의 표현으로 본 것처럼 Barns and Duncan 이 언급한 ‘텍스트의 고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즉, 모든 텍스트가 논쟁과 해석에 열려 있다는 Barns and Duncan의 주장은 그들 자신의 글(남성지리학자의 글)에 대해서는 예외적이며, 그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생산자의 ‘구체적인 체현(embodiment)’ 대신에 ‘거리를 둔 권위’가 자리하며, 경관 텍스트론은 표면적 의도와는 달리 ‘권위적인 독해’를 초래하게 된다(정현주 역, 2012, 238). 그리하여 Rose에 따르면 경관을 텍스트로 은유하는 것은 ‘지리학적 응시’에 내재한 성차별주의 즉, ‘남근중심성’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인 동시에 ‘시각적 권력’을 위한 새로운 ‘남성 중심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정현주 역, 2012, 238). 즉, 경관을 대면하는 지리학자가 시각적 쾌락을 느끼고 동요하는 감정을 가진 남성 주체(feeling subject)라는 점을 숨기는 데 텍스트 메타포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지리학자의 해석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관 텍스트 메타포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메타포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리학적 지식의 남성 중심성을 강화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소 전투적이면서 완고한 페미니스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Rose에 대한 비평은 Nash(1996)의 연구를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Nash는 여성 예술가들이 그린 벌거벗은 남성육체-《Abroad》²⁾를 예로 들면서, 비판적 페미니스트 접근에 대해 재현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비평한다. Nash는 남성 지리학자들이 자신의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에 권위를 부여한 것처럼, 여성의 시각(vision)에 대해서 문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남성적 혹은 여성적 응시에 단일한 혹은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는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재현의 정치학에 대한 비판이 모든 형태의 시각적 즐거움과 재현의 실천을 문제시켰다고 보았다. 그

는 시각적 즐거움을 일반적 남성주의 관념과 동치(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의 경관 재현들-이미지들-간에 나타나는 차이들을 무시하고 전체를 억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그가 예로 들고 있는 여성의 성적 욕망을 표현한 《Abroad》조차도 경관 이미지를 통해 사회조직의 형태를 생산하고 자연화해 온 경관 전통과 관련되어 있으며, 관습적인 경관 이미지의 포맷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Nash, 1996, 151).

... 이 역사는 특정 시공간에서 사회적 권력과 통제를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와의 관계를 이유로 특정 이미지를 영구적으로 억압적인 것으로 고정해서는 안된다. 특정 재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비평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가 생산되고 수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이해해야만 한다. 그 맥락은 그 이미지들이 속한 재현의 전통을 포함하지만 그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Nash, 1996, 151).

결국 Nash는 경관에서 얻는 시각적 쾌락에 대해 Rose가 지나치게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시각적 쾌락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 즉 급진적인 해석을 제안한다. 그는 Rose의 경관 이론비판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Mulvey의 주장까지 동시에 비판하는데, 젠더 정체성과 남성주의 쾌락, 욕망과 유혹의 사고 사이에 지나치게 보편적인 도식을 만들어서 부지불식간에 ‘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Nash, 1996, 156). Mulvey의 관점은 젠더와 시각적 쾌락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볼 권리(spectatorship)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컨대 게이·레즈비언 여성의 이미지와 응시(looking)에 대한 설명은 시각적 쾌락의 재생을 함축한다.

결과적으로 양자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Rose의 경관론 비판과 Nash의 반응을 상호보완적인 쌍으로 간주하여,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에 대한 다양한 페미니스트관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일 것이다. Rose가 말하는 경관 연구에 내재한 지식과 쾌락 간의 긴박한 진자운동(tense oscillation)에 대한 논의는 그 해석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관 개념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는 Daniels의 ‘경관의 이중성’ 및 Cosgrove의 ‘경관의 모호함’과 맞닿아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Daniels에 비해 Cosgrove는 경관 개념의 변증법에 대해 보다 명시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질문의 여지는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Cosgrove는 경관이, 자연과의 상상된 관계를 통해 특정 계급(부르주아계급)이 그들 자신과 세계를 표현(signify)해온 방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1984, 14). Rose는 아마도 그 주체가 단지 계급이 아니라 남성주체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Cosgrove가 밝히고자 했던 경관 개념의 역사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Cosgrove는 경관의 이중적 모호함-주체/대상, 개인/사회-를 설명하면서 주체를 이성적인 동시에 감정적(정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경관의 주체는 대체로 투시법에 기초한 이성과 합리성의 담지체로 정의되는 동시에, 아름다움, 장엄함, 길들임, 단조로움, 훼손 등의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통해 경험되며, 경관의 예술적이고 시적인 이용 속에 함축된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이해와 과학적 방법에 대한 요구는 외부자의 시각을 절대화하고 내부자의 경험을 삭제하며 지리학적 경관에서 연구대상이 보편적 진리라는 관념을 강화하게끔 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경관의 개념에서 주체를 삭제하고 객관적 지식의 지위를 얻는 것이었다(Cosgrove, 1984, 33). 이것이 바로 Sauer와 그 이후의 전통적 문화지리학이 걸어온 길이다. Cosgrove와 Daniels의 전략은 경관 개념에서 미학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복원함으로써, 다시금 주체와 대상의 변증법을 통해 경관을 인식하여 경관의 변증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신문화지리학들이 지식과 쾌락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다는 Rose의 지적은 한편으로 타당하고 날카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동요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지리학에서 강력하게 형성

되어 온 경관 전통의 남성 중심성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징후로 독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오히려 Rose의 비판대상은 Cosgrove가 극복하고자 했던 문화지리학의 과학주의 및 실증주의 전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각적 쾌락을 긍정적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Nash의 Rose에 대한 비평은 유효하다.

4. 비재현적 지리학의 도전과 경관 연구의 새로운 방향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이 등장한지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그들의 주장과 이론은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흐름-비재현적 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과 관련연구들에 의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이론은 현상학적 재고찰을 통해 ‘재현적’ 연구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는 지리학뿐만 아니라 서구사상에서 시각의 특권적인 지위에 대해 도전하는 폭넓은 이론적 경합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de Certeau, 1984; Haraway, 1991; Latour, 1993; Ingold, 2000) 특히 여성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지리학자들은 수행(performance) 및 실천(practice)과 관련하여 시각의 특권적 지위박탈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Thrift, 2000; Whatmore, 2002). 이 같은 주장의 근거에는 주요하게는 페미니즘과 탈구조주의에서부터, STS(과학기술연구), 수행연구, 현상학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론적 배경이 놓여 있다.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문화지리학 경관학파의 대표이론인 재현주의(representationalism)는 살아 움직이는 대상을 프레임 속에 집어넣고, 고정시키며, 죽은 것으로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Lorimer, 2005, 84). 반면에 비재현적 지리학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경관을 일종의 결과물(고정된 재현)이 아니라 인간행동의 과정 속에 있는 실천으로 간주한다. 주체와 대상을 매개하는 육체에 대한 관

십의 회복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경관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재현이론으로 먼저 현상학의 부활을 다룰 필요가 있다. 경관의 일시성(temporality of landscape)에 주목하는 인류학자 Ingold(1993)는 인류학뿐만 아니라 현상학, 생태심리학에 기초하여 Cosgrove와 Daniels의 보는 방식/문화적 이미지로서의 경관 개념을 정면 비판한다.

나는 이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의 구분에 반대한다. 그러한 이분법의 근거에는 정신과 물질, 의미와 실체(meaning and substance)-의 구분이 있다. 경관은 정신의 눈으로 조망하는 상상 속의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질서가 부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외부적 실체가 아니다(Ingold, 2000, 191).

Ingold의 관점에서는 Cosgrove와 Daniels의 경관 개념이 이분법적이라는 것이다. 즉,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는 한편에는 탈체현된 문화적 의미들-상징경관-이 존재하고 이와 별개로 텅 빈 기반으로 자연경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 관념(ideas of culture)과 자연(matter of nature)사이에서 근본적인 구분이 있다는 의미이다(Wylie, 2007, 154). 그는 문화지리학의 전통적 경관 관념과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관념을 통틀어 비판하는데, 전자는 경관을 인간문화의 외부에 있는 일종의 (자연) 배경이자 무대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경관론'이며, 후자는 모든 경관 속에 상징적 의미가 배어 있다고 주장하는 '문화주의적 경관론'이라고 정의한다(Ingold, 2000, 189). 이러한 양극단의 경관론은 서구사상에 내재한 이분법(Cartesian dualism)에 그 기원이 있으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분화라는 현대학문 속에서 더욱 당연시되어왔다(Wylie, 2007, 154). 이러한 점에서 신문화지리학 경관론의 핵심에 있는 경관의 이중성과 모호함은 결국 Ingold와 같은 현상학적 경관론에 의해 이분법적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즉, '문화주의' 경관론은 경관을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 문화와 자연으로 분단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주의 인식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Ingold, 2000).

최근 경관 연구에 대한 현상학적 도전은 경관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서 문화지리학(더 크게는 인문지리학)의 이론적 지형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문지리학에서 비재현이론의 강력한 대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Thrift는 1990년대 후반부터 비재현이론을 통한 인문지리학의 새로운 이론적 토대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영웅적 행위로서의 '저항'을 뛰어넘어 새로운 형태의 저항의 가능성을 Walter Benjamin과 Michel de Certeau의 실천(practice)에 대한 이론에서 찾는다(Thrift, 1997). 그는 1980년대 중반 사회과학 및 인문학의 사유와 실천의 방식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비재현 이론 혹은 실천에 대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는 비재현이론을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요약한다(Thrift, 1997, 126-133). 첫째, 비재현이론은 일상적 실천에 대한 이론으로 특정 장소에서 타자와 자신을 향한 인간행동을 형상화한다. 둘째, 비재현이론은 주체가 아닌 '주체화(subjectification)'의 실천을 다루는 이론이다. 셋째, 비재현이론은 공간적이면서 시간적이다(spatial and temporal). 넷째, 비재현이론은 존재의 기술(technologies of being)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계보를 추적하면, 푸코가 탐구한 국지적인 기술(예를 들면, 감시의 기술),³⁾ ANT의 보다 수행적인 기술, 들뢰즈와 가타리의 아상블라주(assemblage) 혹은 기계(machines)이다. '존재의 기술' 측면에서 이들 세 가지 접근에 공통적인 것은 존재를 거대 내러티브화하지 않고 보다 소박하게 공간화한다는 것이다(Thrift, 1997, 133). 여하튼, 행동과 실천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관심은 (재현으로서의) 경관에 대한 거시적인 이론에 대한 추구하고 배치될 수 밖에 없다. Thrift(2000)는 수행이론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면서 논문의 제목을 <죽은 지리학 다시 살리기>라고 붙였는데 이는 신문화지리학을 포함하여 재현이론에 기반한 20세기 후반의 인문지리학에 대한 그의 비판적 관점을 표현한다.

젊은 문화지리학자 Lorimer(2005; 2007)는 재현적 지리학에서 수행과 실천으로의 관심 이동이라는 변화를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의 표현에 따르

면 ‘비재현이론’은 인간, 텍스트, 시각 중심에서 탈피 하려는(more-than-human, more-than-textual, multi-sensual) 다양한 연구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데카르트주의에 근본적인 요소인 인간주체의 절대성 관념에 대해 비판적인 그는 비재현이론이라는 표현보다 재현을 넘어선(more-than-representational) 지리학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방법론적으로는 현상학적 기반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관심의 초점은 ‘재현’에서 ‘수행’ 혹은 ‘실천’으로 이동한다. 이는 삶의 물질성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려는 것이며, 경관을 재현된 이미지나 이데올로기로 해석하기 보다는 육체경험과 결부지으려 한다. 즉, 경관을 볼 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끄집어내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육체적 실천-‘표현(expression)’에 집중한다. 경관이 해석과 판단의 대상이라는 관점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분리는 육체의 ‘표현’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공유된 경험, 틀에 박힌 일상, 순간적인 조우(遭遇), 육화된 움직임, 실용적인 기술, 정서적인 격렬함, 지속적인 충동, 평범한 상호작용, 감각적인 기질(Lorimer, 2005, 84)’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녹지(그린스페이스)에 대한 관심, 시각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양한 감각의 재발견(예를 들면, soundscape), 응시보다는 직접적인 경험, 체현적 지식, 지리학의 시각주의에 대한 비평, 체현적 지식, 덜 공공적이고 더 실천지향적인 기억연구 등이 비재현적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주제와 방법론에 입각한 많은 문화지리학 연구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 Morris(2009)는 20세기 초 유럽의 나체주의 실천의 감각적인지, 체현된 지리를 탐구하여 육체와 자연 간의 관계 속에 부여된 의미를 찾아낸다. 그는 궁극적으로 나체주의철학이 당대의 현상학적 이론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 Keiller(2009)는 경관사진과 경관영화의 공간적 성격의 중요성을 탐구하여 재현의 결과물로서의 경관보다는 실천과 과정으로서의 경관을 제시했다. Wood(2012)의 연구는 ‘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라는 전통적인 문화지리학의 주제를 ‘비재현적’ 방식으로 새롭게 다루었다. 그는 민족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고정된 ‘전체wholes’로 보는

것에 반대하여 한 예로 스코틀랜드 음악의 ‘수행’을 통해 스코틀랜드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는 지점을 조명한다. 즉, 그는 스코틀랜드 정체성(Scottishness)를 대상화된 관념보다는 ‘실천의 와중에’ 있는, 일종의 살아 있는 경험으로 이해하기를 제안한다.

이 모두는 비재현적 지리학을 향한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이며, 재현이론의 성격이 강한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관 텍스트론과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론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della Dora(2009)는 신문화지리학에 대한 ‘현상학적 실험’이 지목하는 대상이 주로 경관텍스트론에 국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관재현을 ‘시각텍스트’에서 정서적인 인간육체와 감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매혹적인 물질대상 혹은 ‘인간범주를 넘어선(more-than-human)’ 육체로 해석하는 변화에 대해 언급한다(della Dora, 2009; Whatmore, 2006). 최근 동물지리학의 문화적 정향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가능하다. 또한 경관 재현이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조어에 따르면 이는 이동하는 경관대상(travelling landscape-object)이다. 예를 들면 시공간상에서 이동하는 물질적 매체에 삽입되어 있는 그래픽 이미지를 말한다. 그러나, 그의 관점은 전통적인 경관 텍스트론을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상학적 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프레임워크로 ‘대상성(object-hood)’을 제안하는 것이다(della Dora, 2009, 335). 즉, 그는 여전히 시각적인 경관 이미지와 우리가 지나쳐 가는 ‘다감각적 경관(multisensorial landscape)’ 사이의 방법론적 격차를 메우려고 시도한다.

Cosgrove 역시 수행 및 다양한 감각에 대한 강조와 현상학적인 방법론의 대두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보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경관에 대해 비교적 후기의 관점을 담고 있는 글에서 그는 최근의 경관 연구가 시각과 이미지에 초점을 두는 방법에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각에 특권을 부여하는—데카르트와 계몽사상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리스토텔레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서구의 합리주의 전통 속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

시각은 합리적 정신에 도달하게 하는 일종의 윈도우라는 것이다(Cosgrove, 2003, 250). 그리하여 그는 시각이 인간행동의 여타 감각들, 인지, 정서적인 측면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경관에서의 주체가 경관을 새로운 경관 연구의 가능성을 풍수적 개념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즉 중국 및 한국의 풍수에서 기(Qi)의 흐름이, 경관의 개념의 진화-시각적인 것의 제약을 넘어서서 보다 상상적이고(많은 것들을 망라하는), 감각적이면서 인지적인 체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Cosgrove, 2003, 265).

5. 맺음말

지금까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관념을 경관의 이중성과 재현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을 대신해서 논문의 함의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에 대한 마르크시즘과 페미니즘 입장에서의 이론적 비평은 이후의 비재현 이론의 본격적인 발흥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Rose는 경관재현에 대해 수행하는 주체(performative subject)의 관점에서 비판함으로써 재현보다는 실천(practice)을 강조하는 향후의 이론적 지형 변화를 예감하게 했다. 그리고 Mitchell은 경관의 물질성 회복에 지속적으로 천착함으로써 경관 연구가 비판적 사회이론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요구했다. 급진지리학의 일부로 스스로 정의했던 초창기 신문화지리학 연구를 고려할 때 Rose와 Mitchell의 비판은 비록 그 자체로는 성공적이지 못했을지라도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은 비판적 경관 이론의 급진성, 육체성, 물질성 회복을 추구했으며 그러한 시도는 이후 다양한 비재현 이론과의 조우 속에서 강력한 흐름이 되었다.

둘째, 비재현 이론과 그에 동조하는(문화지리학자를 포함하여) 많은 인문지리학자들이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를 비판하면서, 양자의 차이만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 장에서도 잠시 살펴보았

듯이, 신문화지리학 내에서도 Cosgrove와 그에게 학문적 영향을 받은 젊은 지리학자들의 연구에서 실천, 수행 및 체현에 대한 심화된 관심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della Dora, 2009; Dubow, 2000; Jin, 2009 참조), 외부에서의 비판과 함께 지난 20여 년간 일부 경관 연구 속에서도 이미 그러한 변화와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Driver and Gilbert, 1998; Matless, 1998; Nash, 2000). 그러나 이러한 경관 연구의 내적인 변화(혹은 진화)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지는 쉽게 말하기 힘들다. 오히려 현 단계 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는 거주(dwelling)와 인지(perception) 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현상학적 인류학의 경관 이론에서 강하게 영향 받고 있다(Ingold, 2000; Tilly, 2004). 문화지리학자들이 위의 개념을 토대로 어떻게 구체적인 연구 속에서 이러한 문화지리학의 방향설정(reorientation)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이론이 한국의 경관 연구에 갖는 함의에 대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실제로 많은 사례연구들이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학문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⁴⁾ 그러나, 최근 경관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나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새로운 이론-현상학적 전환에 따른 경관 이론을 또다시 소개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전에 한국의 지리학자들이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이론을 어떻게 소화해 왔는가에 대해 차분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부연하면, 신문화지리학의 주요 방법 중에서도 텍스트 은유가 실제 연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방법론과 이론배경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가설적으로 언급해 본다면 한국의 지리학에서 이러한 텍스트 방법론의 범용성은, 그 이론이 다소 결정론적이거나 완결적이고 고정된 방법론적 틀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지리학의 핵심 개념으로서 텍스트 은유가 공헌한 바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굳이 단점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연구는 경관과 사회세계의 역사적·사회적으로 고유한 맥락과 구성(formations)을 강조하여 일반화된 모델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연구는 이중성 및 변증법적 속성과 같은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속성을 경관의 내재적 특성으로 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첨언하면, 우리는 새로운 경관 이론의 검토과정을 지식과 이론의 맥락적·구성주의적 성격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의미에서 성찰해 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중립적’ 지식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이며 지리학적 지식을 소위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경관 연구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해 본다면, 텍스트이론이 다소 고정되고 범용적인 연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연구방법이 우리 지리학의 지식으로 어떻게 내재화하고 재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

1) “대정원을 아카디아 풍 조망이 보이도록 개조하려면, 대정원의 경계를 벗어난 농지와 진정한 의미의 전원토지에까지 이미 착취체제가 완비되어 있어야 했다. 그곳들에 강제적으로 관철되고 있던 체제는 사회경제적 체제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 체제이기도 하였다. 인클로저 재정문서에 따른 직선의 울타리와 직선의 도로, 바둑판처럼 엄격하게 수학적으로 분할된 토지는 정원의 자연스러운 곡선이나 분산 배치된 조형물들과 같은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일견 취향면에서 서로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일한 과정의 서로 연관된 일부였다. 토지는 생산을 위해서-차지농과 노동자들의 작업장으로-조직되고 있었고, 정원은 소비를 위해서-경관과 유한계급의 여유로운 휴식, 조망을 확보할 목적으로-조직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서로 대립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이현석 역, 2013, 252).”

- 2) Diane Baylis의 작품으로, 남성의 벌거벗은 신체를 마치 나무가 울창한 산 능선처럼 묘사한 사진이다. 이를 통해 자연 및 경관과 (남성의 응시에 의해 대상화된) 여성의 신체를 동일시하는 전통적 페미니스트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효과를 낳는다.
- 3) 물론 세 접근 중에서도 푸코의 기술모델은 가장 덜 수행적이라는 점을 Thrift는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푸코의 모델에 비해 ANT는 비인간 행위자에 보다 큰 역할을 부여하며, 유연성을 더욱 강조한다(Thrift, 1997, 131)
- 4) 논문의 연구목적과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어떤 구체적인 연구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이 연구들을 유형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논의를 미루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구동회·박영민 역,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 of Cultural Change*, Blackwell Publishers).

나종일 역, 2000,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상/하, 창작과 비평사(Thompson, E. P., 1963,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Penguin).

류제현·진종현·정현주·김순배 역, 2011, 문화정치 문화전쟁, 살림(Mitchell, D.,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Blackwell, Oxford).

류제현, 2009, “한국의 문화경관에 대한 통합적 관점,” 문화역사지리, 21(1), 105-116.

박승규, 1995, “문화지리학의 최근 동향: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7, 131-145.

이무용, 1999, “한국도시경관의 근대성: 경관 연구의 지평확대를 위하여,” 문화역사지리, 11, 95-117.

이영민·진종현·박경환·이무용·박배균 역, 2011, 현대문화지리학, 논형(In D. Atkinson, P. Jackson, D. Sibley, N. Washbourne(eds.), 2005,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Dictionary of Key Concepts*, I. B. Tauris, London and New York).

이현석 역, 2013, 시골과 도시, 나남(Williams, R., 1975, *The Country and the City*, Oxford University Press).

진종현·서민철·장의선·박승규, 2012, 인문지리학의 시

- 선, 사회평론.
- 정현주 역,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Rose, G., 1993,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Polity Press, Cambridge).
- 진중현, 2006, “코스그로브의 경관 이론,” 현대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 홍금수, 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 46-94.
- 홍철기 역,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Latour, 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 C. Porter,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ns, T. and Duncan, J.(eds.), 1991,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Routledge, London.
- Braun, B., 2002, *The Intemperate Rain forest: nature, culture, and power on Canada's west coas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Casey, E., 2002, *Representing place: landscape painting and map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London.
- Cosgrave, D., 2003, Landscape and the European sense of sight-Eyeing nature, In K. Anderson et al.,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Sage publications, 249-268.
- Cosgrove, D. and Daniels, S., Eds., 1988,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essays on the symbolic representation, design, and use of past environ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 Cosgrove, D., 1983, Towards a radical cultural geography: problems of theory, *Antipode*, 15(1), 1-11.
- Cosgrove, D., 1984,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Barns & Noble Books, Totowa, N. J.
- Cosgrove, D., 1985, Prospect, perspective and the evolution of the landscape idea, *Transactions of British Geographers*, 10(1), 45-62.
- Cosgrove, D., 1989, Geography is everywhere: culture and symbolism in human landscapes, In D. Gregory and R. Walford(eds.), *Horizons in Human Geography*, London: Macmillan, 118-35.
- Daniels, S., 1989, Duplicity of landscape, In R. Peet and N. Thrift(eds.), *New Models in Geography: the political-economy perspective*, 2, London; Boston: Unwin-Hyman.
- Daniels, S., 1993, *Fields of Vision: landscape imagery and national identity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Polity Press, Cambridge.
- de Certeau, M.,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 S. Renda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della Dora, V., 2009, Travelling landscape-object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3(3), 334-354.
- Driver, F. and Gilbert, D. 1999, Imperial Cities: overlapping territories, intertwined histories. In F. Driver and D. Gilbert(eds.), *Imperial Cities: landscape, display and identit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1-17.
- Dubow, J., 2000, *Colonial Settlement and Landscape in South Africa*, dissertation thesis, University of Nottingham.
- Duncan, J., 1980, The superorganic in American cultur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2), 181-198.
- Duncan, J.,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ian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ncan, J. and Duncan, N., 198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 117-126.
- Geipel, R., 1978, “The landscape indicators school in German geography”, In D. Ley and M. Samuels, eds., *Humanistic Geography*, 155-72.
- Haraway, D., 1991,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Free Association of Books, London.
- Harvey, D., 1979, Monument and myth,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9, 362-381.
- Holt-Jensen, A., 1981, *Geography: Its History and Concept*. London: Harper and Low.
- Ingold, T., 2000, *The Perception of Environment: Essays i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Routledge, London.
- Jay, M., 1984, Adorno, London, Fontana.

- Jin., J., 2006, The transforming sacredness of Mt. Chirisan from an utopian shelter into a modern national park: focused on the escapist lives of 'Mountain Me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2), 172-186.
- Jin., J., 2009, "Paektudaegan: memory, science, colonialism and mountain mapping in Korea," *High Places: Cultural Geographies of Mountains and Ice* (edited by Veronica della Dora and Denis Cosgrove), I. B. Tauris Publishers.
- Keiller, P., 2009, Cultural geographies in practice: Landscapes and cinematography, *Cultural Geographies*, 16, 409-414.
- Latour, 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 C. Porter, Harvard University Press, Brighton: Harvester Wheatsheaf/Cambridge, MA.
- Lorimer, H., 2005, Cultural geography: the busyness of being 'more than representational',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 83-94.
- Lorimer, H., 2007, Cultural geography: worldly shapes, differently arrange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1), 89-100.
- Matless, D., 1998, *Landscape and Englishness*. Reaktion, London.
- Meinig, D.W.(ed.), 1979,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Mitchell, D., 1994, Landscape and surplus value: the making of the ordinary in Brentwood, CA,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2, 7-30.
- Mitchell, D., 1996, *The Lie of the Land: migrant workers and the Californian landscap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Mitchell, W. J. T.(ed.), 1994, *Landscape and Pow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Morris, N., 2009, Naked in nature: naturism, nature and the senses in early 20th century Britain, *Cultural Geographies*, 16, 283-308.
- Nash, C., 1996, Reclaiming vision: looking at landscape and the body, *Gender Place and Culture*, 3, 149-169.
- Nash, C., 2000, Performativity in practice: some recent work in cultur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 653-664.
- Relph, E., 1987, *The Modern Urban Landscap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auer, C., 1963, The morphology of landscape, Reprinted in J. Leighly(ed.), *Land and Life: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Carl Ortwin Sau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CA, 315-350.
- Thrift, N., 1997, The still point: resistance, expressive embodiment and dance, Steve Pile and Michael Keith(eds.), *Geographies of Resistan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24-151.
- Thrift, N., 2000, Dead geographies-and how to make them liv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 411-432.
- Tilly, C., 2004, *The Materiality of Stone: explorations in landscape phenomenology*, Berg, Oxford.
- Whatmore, S., 2006, Materialist returns: practising cultural geography in and for a more-than-human world', *cultural geographies*, 13, 600-609.
- Wood, N., 2012, Playing with 'Scottishness': musical performance, non-representational thinking and the 'doings' of national identity, *Cultural Geographies*, 19(2), 195-215.
- Wylie, J., 2007, *Landscape*, Routledge.
- 교신: 진종현, 314-70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56, 국립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jhjin@kongju.ac.kr, 전화: 041-850-8422)
Correspondence: Jongheon Jin,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56 Gongjudae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314-701, Korea (e-mail: jhjin@kongju.ac.kr, phone: +82-41-850-8422)

최초투고일 2013. 7. 25

수정일 2013. 8. 18

최종접수일 2013. 8. 26